

개혁주의 4대 표준문서(Standard Documents) 활용을 위한 역사적 고찰-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법 (Catechism Preaching) 확립을 위한 제언¹⁾

윤 종 훈
(총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형성된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 나타난 성령의 역동적인 은사의 형태는 영적으로 매우 뜨겁고도 역동적인 현상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체성이 정착되어가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점차 기독교 공동체의 원숙한 형태의 은사와 체계적인 교회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로마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펼쳐진 기독교 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1) 한국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리강해 및 교리 성경공부와 본 개혁주의 교리교육설교법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교리강해는 주제중심이 아닌 하나의 요리문답서에 대한 해설 또는 설명에 국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본 교리교육설교법은 교리의 핵심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및 요리문답서를 총 동원하여 이를 한 주제에 맞추어 설교형태로 이를 이어가는 기법인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884년 존 로스를 통해 복음의 진수가 전달된 이후 1886년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위시한 다양한 해외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복음전파 사역을 통해 한국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다이나믹한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특히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시점으로 한국의 교회는 엄청난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성령의 초기의 은사는 점차 비가시적이지자 성숙된 은사들인 사랑, 희락, 섬김, 봉사 그리고 남을 위한 헌신, 국내외 해외 선교사 파송 등의 모습으로 승화되었다.

1980년대까지 급속히 성장했던 한국 기독교가 정체(Stagnation) 시기를 거쳐 급기야 하향곡선을 향해 치닫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 초기에 형성되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하나님만을 추구하였던 초대교회적인 현상 즉 초기 기독교적 현상이 보다 원숙한 은사중심으로 승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성도들을 보다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끌어 갈 수 있는 후속적인 대안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신앙고백과 이에 부응한 삶의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리교육이 정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교회학교와 강단에서 실시되어야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한 기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각 교파들은 각 교단의 양적 부흥과 수적 계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교단 부흥에 열중해왔고, 자본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인 물량주의 신학이 온 교회에 편만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지상의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설교와 현세적 축복을 강조하는 설교가 온 강단에 채워지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경과 신학적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내적 성숙과 지적 성장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통한 원숙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실현해 가야할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한 듯 온갖 이단들이 거리에 횡횡하게 되었고 이들의 체계화된 비성경적이지자 비신학적인 교육사상의 범람으로 인하여 기존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수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²⁾ 그 일례로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 재

림 시기로 주장하였던 시한부 종말론이 발생하였을 당시 수많은 장로교 교인들이 이들에게 쉽게 동화되어 기성교회를 벗어난 원인은 기성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하였지만 구원의 확신과 신앙과 삶의 정체성에 대한 불분명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생활 속에서 성경 66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 및 설교에 충실하게 훈련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사에 등장하였던 각 시대와 국가의 교회들의 흥망사를 고찰하면서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 및 침체의 원인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2세기를 한국교회의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필자는 다양한 교회성장 침체의 원인들 가운데 내적 원인인 강단의 위축 또는 약화 및 기복주의적인 말씀선포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강단의 말씀회복과 아울러 가장 성경주의적이고도 개혁주의적이며 칼빈주의적인 설교기법으로서의 교리교육설교(Catechism Preaching)의 적극적 활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교리교육 설교법을 소개함에 있어서 우선 교리교육 설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교리설교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고찰할 것이다. 기존의 교회에서 실시된 요리문답 성경공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중 어느 하나를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묶어서 예배시간에 아닌 제한된 대상을 위한 성경공부

2) 1610년 당시 칼빈주의자들에 대하여 의회에 항의문을 제출한 알미니안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시한 다양한 이단들이 득세함으로, 1618년 당시 네델란드의 도르트 총회(the Synod of Dordt)에 모였던 당대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수많은 이단들이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원인은 교리문답적 가르침에의 부족의임을 의심치 않는다”. 박현주,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설교에 관한 연구, 고려신학대학원, 1998년 석사학위논문, 22, Quoted in *Acta ofte Handelinghen des Nationalen Synodi* (Doordrecht, Canin, 1621) I, 30-41.

형식으로 시행해옴에 반하여, 본 필자는 교회사에 등장하였던 개혁주의적인 신앙고백문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등 6개조의 신앙문들을 하나의 틀로 엮어서 일차적으로 조직신학적 방법론을 통해 체계화시키고 이를 교회의 강단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신학적인 면을 한층 강화시켜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의 조화를 이룬 1년 52주 설교안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2세기에 접어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내적 신앙을 향상시키고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함으로써 미래 한국교회의 삶의 신앙과 신학(Doing Faith and Theology)을 형성케 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II. 교리교육(문답) 설교법의 역사적 배경 및 정의와 성격

1. 교리교육 설교법의 역사적 배경

제목설교와 본문설교 그리고 강해설교와의 성격을 달리하는 본 개혁주의 교리교육설교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거부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인 루터파와 개혁파 가운데 개혁파에 속한 개혁주의 신학을 모토로 삼은 고백자들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작성된 설교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종교회의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신조들(Creeds)과 신앙고백서들(Confessions) 그리고 교리문답서들(Catechisms) 가운데 개신교 개혁주의에 입각한 교리서 즉, 스위스 벨직 신앙고백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과 웨스트민스터 표준신앙문서들을 총체적으로 체계화하되, 이를 설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핵심교리와 교리에 근거한 바른 삶을 한데 묶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적용하는 설교법을 지칭한다.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당시부터 정립된 “공교회 신조들”(Synbola Oecumenica, s. Catholica) 즉,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s),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 325), 아타나시우스 신조(The Athanasian Creed)³⁾, 칼케돈 공의회 신조(Oecumenical Council of Chalcedon, 451) 등을 귀시하여 스위스 바젤의 제1 신앙고백서(The First Confession of Basel, 1534)와 제2 신앙고백서인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The First Helvetic Confession of 1536), 제네바 신앙고백서(The Geneva Confession of 1536), 제네바의 영국 회중교회의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Geneva, 1556), 프랑스 신앙고백서(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1559),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등 매우 개혁주의적이고도 성경주의적인 신앙교육서들이 당대의 신자들을 설교를 통해 일깨우는 교육적 역할을 감당해왔다.⁴⁾ 이러한 다양한 신앙교육서들을 전부 참조하여 교리교육 설교법에 적용함이 마땅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신앙교육서들은 앞서 기술한 6개의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수정, 증보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리교육 설교는 비단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부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실행되어왔다. 1-2세기 당시의 형성된 초신자 학교 또는 세례지원자학교, 세례예비학교(Catechumenal Schools)⁵⁾는

3) 이 신조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아리우스주의자들(Arians)의 주장에 반박하여 성경적으로 논증하였던 Athanasius (A.D. 293-373)의 이름을 따서 후대에 붙여진 신조이다.

4) Arthur C. Cochrane,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Centu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6). 이 책은 개혁주의 신앙교육서 가운데 특히 16세기에 등장했던 모든 신앙교육서들을 총망라하여 구체적으로 잘 소개해 주고 있다.

5) 교리문답을 의미하는 “Catechism”이라는 용어는 세례예비생 또는 세례지원자이라는 “Catechumen”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헬라어의 ‘가르침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귀에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눅 1:4; 행 18:25; 21:21, 24; 롬 2:18; 고전 14:19; 갈 6:6). Lewis J. She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186;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85-86을 참조할 것.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세례와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몇 년을 가입회사(Probationary)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 학교는 기독교핵심교리들을 통해 새 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장로, 집사 등을 교사로 선정하여 두 가지 형태 즉 교리교육을 위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훈련시켰다.⁶⁾ 이러한 초신자학교는 2세기 말-3세기에 이르러 “교리문답학교 또는 교리교육학교”(Catechetical School)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대 그리이스, 로마의 학문과 이교도 사상가들이 횡횡해짐에 따라 기독교 학문적 접근법을 통해 성도들이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⁷⁾ 특히 어거스틴(Augustinus, 354-430)은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였으며,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연속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초대교 교부였던 예루살렘의 키릴(Cyril of Jerusalem)은 사도신경, 성례 및 예배의식에 관하여 설교를 집중적으로 강론하여 강단을 풍요롭게 장식하였다.⁸⁾

중세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교리교육의 형태는 중세 초기에 약화되다가 세속적인 학문의 발흥으로 인하여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⁹⁾ 그러나 이러한 교리교육은 대성당 학교(Cathedral Schools)와 수도원학교(The Monastic Schools)를 통해 진행되었다. 789년에 카롤링거왕조의 제2대 프랑크 국왕인

6)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 기독교 교육사, 유재덕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91. Charles Gresham은 세례지원자학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 모임의 형태는 미사 카테구메누스(missa catechumenus) 혹은 세례지원자의 미사(mass)로 알려졌다. 이것은 교육적 예배로 유대교의 회당예배를 본뜬 것이다. 세례지원자로 알려진 세례에 앞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였다”, Eleanor Daniel, John W. Wade, and Charles Gresham,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Cincinnati: Standard, 1980), 36-37.

7) 이러한 학교는 Alexandria, Edessa, Caesarea, Nisibis, Jerusalem, Cartago, Antioch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특히 안디옥에서는 Lucian, Diordorus, Theodore of Mopsuestia, John Chrisostom 등이 활동하였다. Lewis J. She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207-208.

8) J.N.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New York: Longman, 3rd ed. repr. 1983), 32.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742-812)는 규정을 수립하여 주교들로 하여금 ‘사제들의 신실한 신앙 유지와 그들 스스로의 주기도문 이해와 그것을 모두가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설교하는지’를 감독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후 825년 당대에는 각 사제들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정통교부들의 전통을 따라 널리 연구하여서 그것을 설교함을 통하여 신자들이 그것들을 신앙하도록 가르치도록 하였다.¹⁰⁾ 13세기에 들어서자 네덜란드와 매주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한 교리교육 설교를 하도록 하였으며, 십계명과 교회 7성례는 최소 일 년에 3-4회 반복적으로 설교하도록 하였다. 또한 1281년 잉글랜드의 램베트 총회(Synod Lambeth)는 당대 성직자들의 교리지식부재를 지적하면서 모든 성직자들은 신조, 십계명, 율법의 두 대강령, 자비의 일곱 가지 행위, 일곱 가지의 주요 죄악, 일곱 가지 덕목, 칠 성례를 설교하도록 규정하였다. 독일의 요하네스 게르손이 교리문답 주제를 통해 설교하되, 특히 십계명과 신조들을 집중적으로 설교하였으며, 당대 많은 설교자들이 교리를 주제로 많은 설교를 시행하였다.¹¹⁾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부터 교리문답 설교를 강단에서 시행하였으며,¹²⁾ 특히 루터의 신앙교육서(Luther Katechismus)와 칼빈의 지네바 신앙교육서(Genfer Katechismus)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Heidelberg

9) 중세 초기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폰 아를레스(Caesarious von Arles, 470-542)는 그리스도인의 기초신앙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설교하였으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기독교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도신경(Apostolicum)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로서의 주기도문(Paternoster), 셋째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서의 십계명(Dekalog)이라고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이 이에 관한 내용을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함함으로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목회자와 설교(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2), 134.

10) J. C. L. Gieseler., *Lehrbuch der Kirchengeschichte* (3.ed., Bonn: Adolph Marcus, 1831), vol.2/1, 71, quoted in 박현주, 17.

11) A. Troelstra, *De toestand der catechese in Nederland gedurende de voor-reformatorische eeuw* (diss. Utrecht: Groningen: J.B. Wolters, 1901), 145-108; W. Jetter, "Katechismuspredigt", in *TRE vol.17*, quoted in 박현주, 16-18.

Katechismus)가 사용되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주창한 칼빈은 제네바 개혁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먼저 ‘교회법’을 작성하고 신조를 비롯한 ‘예배모범서’ 그리고 제네바 교회의 교리교육을 위한 신앙고백서(Katechismus)를 출간하였다(1542-1543).¹³⁾ 그는 제2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교회 청소년들과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만 10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고백서를 학습토록 하였으며, 매 3개월마다 성만찬 참여자들을 위한 시험을 치렀는데 이 고백서를 학습한 자에게 항상 시험을 치루고 난후 성찬식에 참여토록 허락하였다.¹⁴⁾

특히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1560년부터 모든 목회자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두 번의 공중예배 가운데 두 번째 예배 시에는 항상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 청년들과 성경에 무지한 자들을 가르칠 것을 결정하였으며, 1603년 잉글랜드 교회는 매주일 또는 휴일마다 30분 이상 십계명과 신조들, 주기도문 등을 철저하게 설교할 것을 결정하였다. 특히 영국 부흥운동의 주역을 감당하였던 청교도들은 교리문답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교리를 강론하였다.¹⁵⁾

12) 루터는 1528년 교리문답 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현행관례는 기독교적 지식과 삶의 요소에 대한 기초를 일 년에 네 번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나는 매년 1/4분기 시마다 2주를 강해하되 1주 당 4일 동안 오후 2시에 교리교육 설교를 시행하였다”, “Sermon I”, *Luther's Works*, v. 51 edit., John W. Doberstei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135.

13) 원래 칼빈은 이미 1537년에 제네바교회를 위한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효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를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작성한 신앙교육서의 해설서로 이해된다. 정일웅, *교육목회학* (도서출판 솔로몬, 1993), 330-331.

14) 정일웅, *교육목회학*, 332.

15) 주교였던 Joseph Hall은 그의 인종 시에 고백하길, 매 설교시에 교리문답 설교에 더욱 많은 시간을 주력하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후회한다고 하였으며, Henry More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에 가서 교리문답 설교를 하도록 수인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John Owen 또한 “특히 청년들이나 무식자들에게는 장시간동안 계속적인 강의를 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의 교리문답 숙달에 더욱 많은 지식이 통상적으로 유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 주일학교 역사를 일구어내었던 Josheph Alleine은 청교도 중 한사람으로서 1660년에 주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문답 설교를 철저하게 준행하였다.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사, 274-277.

2. 교리교육설교의 정의 및 성격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대부분 교회는 “요리문답”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추세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개혁교회에서는 요리문답을 통한 성경공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대부분 이를 학습자와 세례자 교육에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교리교육 설교 또는 요리문답 설교법”(Catechism Preaching)은¹⁶⁾ 한국 교회전통 가운데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로서 매우 생소하게 보인다. 한국 개신교 즉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및 루터교 등에서 교리교육 설교를 시행하는 교회는 매우 찾아보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거의 이 용어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소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리교육 설교라는 용어는 1998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석사 학위논문에도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¹⁷⁾ 그러나 아직도 그 용어가 현실적으로 편만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존 칼빈은 1548년 영국의 한 성직인 세이모어(Edward Seymour)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길, “교회는 교리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교리에 의한 교육 없는 교회는 존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교리교육(Katechismus)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¹⁸⁾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문답(katechismus)은 ‘교리의 총합’(summa doctrinae)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가르침’ 즉 ‘신앙의 윤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칼빈의 교리교육의 목표는 구원교육이자 하나님의 교육(Paedagogia Dei)이었다. 따라서 칼빈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16) 이후로부터는 “교리교육 설교”로 표기하겠음.

17) 박현주,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설교에 관한 연구; 박기윤, 현대 한국교회 교리 설교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부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요리문답서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3), 미간행 논문을 참조할 것.

18)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임무는 교리의 해명(explicatio)과 해석(interpretatio) 그리고 적용(applicatio)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OS III,111f; I,13, 3; V,9; IV,1, 5; V,43, 46; CR 48, 466; 행 20:26).

“하늘의 교리를 설교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음”을 철저하게 강조하였다.¹⁹⁾

이처럼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리교육설교는 비단 오늘날에 해당되는 설교법이 아니라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부터 실행되어오다가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하였던 존 칼빈을 위시하여 여러 청교도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및 설교자들이 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설교법이다.

기독교대백과사전은 교리 설교를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해 주는 강단 설교”로 해석하였다.²⁰⁾ 그러나 교리 설교는 기독교 교리에 집중한 교리해설 설교를 의미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는 단순한 한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본문의 구조분석 및 본문에 제한된 본문강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교리교육의 설교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교리교육설교는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신학사상과 신앙의 지침들—즉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52주로 나누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이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주제들을 선정하되, 역사적인 개혁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신조들과 신앙고백서 및 요리문답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각 주제들을 중심으로 강해해나가는 설교법이다.

주의할 점은 이 설교법은 단순한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도 아니고 제목설교 또는 주제설교(Topical Preaching)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리교육 설교는 각 신앙교육서들에 제시된 성구들을 설교 본문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각 주제에 가장 적합한 성경구절을 선택하여 본문구절로 구성하되 그 본문만을 강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그

19) *Corpus Reformatorum*, 13, 84.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루터, 칼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와 그 해설 (서울: 풍만출판사, 1987), 13.

R. Hedtker,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Heidelberg*, 1969, S. 82., Quoted in 정일웅, *교육목회학*, 333.

20) 기독교대백과사전 중보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125.

주제 아래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성경지식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서 개혁주의 신학에 기인한 정확한 신앙고백과 아울러 그 고백함이 현장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표출되어만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에 집중하는 설교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리교육 설교법이 한 주제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하는 점에 있어서 제목설교와 어느 면에서는 상통하고 있다.

설교의 형태를 고찰해 볼 때, 강해설교(본문설교)와 주제설교(제목설교)로 대별할 수 있다.

현대 설교학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강해설교는 본문을 중심으로 (Textual Preaching) 설교를²¹⁾ 전개해 나가되 “성경 본문의 배경이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으로 연구하여 발견해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의 설교법을 지칭한다.²²⁾ 이처럼 강해설교를 특징으로 하는 본문설교는 성경 가운데 설교자가 한 본문을 선정하고 그 본문 속에서 제목 및 다양한 대지들을 산출하여 오직 본문 내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마치는 설교기법을 말한다.²³⁾

21) R.H. Montgomery는 강해설교를 정의하되, “설교자는 다른 사람이 최근의 베스트 셀러를 읽을 때 도취되는 것처럼 특정한 성경 본문에 도취된다.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특정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함으로써, 강해설교는 항상 본문중심 설교를 동반함을 강조하였다.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22.

22)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38, 20. 이에 대하여 메릴 웅거는 강해설교를 성경적인 설교법이며, 성경적 교훈을 성도들에게 부여해주는 설교법이며, 계시된 진리를 조리있게 통일된 실체로서 성경을 상술하는 설교법이라고 강조하였다. M.F.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1955), 33-36. F.B. Meyer는 강해설교를 이르길, “강해설교란 그 속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정신이 설교자의 심령 속에 들어 오기까지 설교자가 머리와 마음과 두뇌와 근육을 총동원하여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울고 그리고 기도한 성경 중의 어느 한 책이나 또는 보다 확장된 부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방법”으로 묘사하였다. F.B. Meyer, *Expository Preaching, Plans and Methods* (Hodder and Stoughton, 1912), 38.

23)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260.

이에 반하여, 전통적인 주제설교는 설교본문을 근거로 제목을 선정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지들을 찾아서 설교를 구성하는 방식을 지칭한다.²⁴⁾ 주제 또는 제목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질문과 관련하여 신앙적 물음에 대답해 주는 기능 관계에서 생겨난 설교형태로서”²⁵⁾ 이는 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법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설교(Katechismuspredigt)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윈처(F. Wintzer)는 주제설교의 임무는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내용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자신의 변증을 이끌 수 있도록 신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 주는 데 있다”고 하였다.²⁶⁾ 정일웅은 주제설교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주제설교를 시도하지만 이러한 전통성에서 벗어난 형태의 주제설교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주제설교를 기독교 전통과 신조 그리고 상황 사이의 질문 내용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 성경과 복음의 원리적인 관계에서 설교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⁷⁾

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법의 기본 형태는 주제중심의 설교의 형태를 지닌다. 가령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리 설교는 본문을 정한 후에 제목을 결정하는 본문중심의 설교와는 다른 구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주제설교 또는 교리설교는 개혁주의적 교리교육 설교법과 동일시 할 수 없다.

24) Alfred P. Gibbs, *The Preacher and His Preaching* (Kansas City: Walterick Publishers, 1939), 268. Hoekstra에 의하면 제목설교 또는 주제설교는 Scholasticism과 Rationalism의 영향 아래 본문설교를 대조법으로 다루는 제목설교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주제설교는 주제가 단순히 본문에 연결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설교 본문에서 벗어난 설교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 Hoekstra, *Goreformeerde Homiletiek* (Wageningen, 1928), quoted in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253.

25) F. Wintzer,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86.

26)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quoted in 정일웅, 교육목회학, 381.

27) Ibid.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주제설교는 구원, 신앙, 기도, 사랑, 선교, 조리 등을 주제에 입각하여 설교하되,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설교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매 주일에 필요한 주제만을 선정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어왔다. 가령, 이단들이 득세할 때 교회들은 '기독교진리'에 벗어난 이단사상들의 문제점들을 중심주제로 설정하여 설교해왔으며, 교회에 분쟁이 생길 시에는 분쟁의 해악성을 지적하는 설교로 일관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설교법은 교회의 본질과 위상을 정립하여 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매우 도움이 되는 설교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제설교의 약점은 일차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으로서의 설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체계적인 전통적 주제설교는 편향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형태를 지니게 되었고, 교회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에 기인한 설교를 진행함으로써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주제가 설정되기도 하고 남을 폄하하고 정죄하는 설교로 진행될 소지를 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교회의 설교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진다.

한편 설교와 성경공부 과정을 통해 실시된 교리강해는 주로 수요일 오후시간을 통해 선포되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리강해는 복음과 현실 그리고 말씀과 삶의 정황(Sitz-im-Leben)의 조화를 상실한 설교형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설교법은 현실적 적용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성도들에게 해당 교리만을 암송하는 형태의 설교방식에 따른 매우 기루하고도 흥미를 상실한 설교 형태였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교리설교법은 한 교리적 주제를 설교함에 있어서 관련된 수많은 성경구절들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본 주제를 철저하게 성경적 배경과 현대의 시대적 배경을 한데 묶어 강해하되, 매우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결단을 도출해 내는 설교법이다.

3. 교리교육 설교의 필요성 및 유용성

칼빈이 지적한 바처럼 교리설교는 “성경에서 나오며 기독교 자체요 복음이요 설교는 곧 교리해설”이다.²⁸⁾ 칼빈은 평신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강단에서 자세히 가르치는 교리설교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그는 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초신자들을 위시한 성인들을 위한 교리설교를 실시하였으며, 55주에 해당하는 신앙교육서(Katechismus)를 작성(1542-1543)하여 제네바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²⁹⁾

칼빈은 1548년 영국의 에드워드 세이모어(Edward Seymour)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르길, “교회는 교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교리에 의한 교육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교리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⁰⁾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인식해야 할 신앙의 기본지식으로서의 교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 교리는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가르침”으로서의 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설교는 기독교 지침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아울러 이를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신앙자(Doing Christian)를 양성함에 목적을 두었다.

상기한 바처럼 교리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지침을 성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교리 설교는 기독교인으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신앙지식 뿐만 아니라 이 기본신앙 지식이 삶 속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으며 성화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해주는 해법인 것이다. 이처럼 교리설교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앙의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을

28)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66-78. 칼빈은 Katechismus를 교리교육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교리교육을 교회교육의 중심에 두었다. 정일웅, 교육목회학, 329.

29) W. Neuser, *John Calvin* (Neukirchen, 1870) quoted in 정일웅, 교육목회학, 331.

30) *Corpus Reformatorum*, 13, 84, 정일웅, 종교개혁시대-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13.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³¹⁾ 목회학 차원에서 교리교육 설교는 설교가의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확신감을 제공해 주며, 성도들이 분명한 기독교 신앙지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케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리교육 설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리적 기준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단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 주위에 널리 확대되어 기성교회의 신앙과 신학사상의 위협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휴머니즘에 입각한 다양한 신학 사조들 즉,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정통주의를 위시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운동, 성의 신학, 한의 신학, 해방신학, 환경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등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을 거부하며 건전한 교회의 신앙관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정황 속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리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주의적이고도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서 진실하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1992년 이장림을 중심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당시 “빛과 소금”에서 실시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자들은 종말의 한계선을 200점으로 규정했을 때 57.5%는 이미 종말이 80점에 이르렀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1992년 10월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전체 26%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할 정도로 무지하고 왜곡된 신앙관을 보여주었다.³²⁾ 이러한 자들은 한국교인들이 건전한 성경교리에 얼마나 훈련되지 못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림론자들의 주장에 편승하여 그들의 재림사상을 추종하다가 폐가망신하는 신자들이 속출하였다. 이처럼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성경적이고도 건실한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교육할

31) 정일용,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관 연구 IV”, 기독교신보, 1986, 7, 2주.

32) 빛과 소금, 1992년 4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수 있는 방법은 교리교육 설교법이다. 따라서 교리교육 설교를 설교강단에서 주기적으로 선포하여 교육함으로써, 성도들이 이단들의 술수적 가르침에 혼동하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과 열성을 가지고 건전하고도 성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예의 십자가 군병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교리교육설교는 신학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체성에 대한 부재 및 공황상태에 처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체계적인 신학과 신앙을 주입해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세계관과 인생관, 신앙관을 정립시키는 데 매우 필수적인 교육방법이다. 사도신경에 대한 교리 설교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사역을 체계적이고도 분석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구원적 교리 즉 소명, 중생, 신비적 연합,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등에 대하여 성도들이 보다 면밀하게 인식하고, 십계명 교리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를 철저히 교육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교리교육 설교는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성도들이 성경 전권을 완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교회 교인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교리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전개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성경구절을 연구하여 섭렵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리 설교는 “성경해석의 기본열쇠”³³⁾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 전 유럽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교리설교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교리 설교를 각 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성도들이

33) K. Witt, Konfirmandenunterricht, Witten, 1962, quoted in 정일웅, 교육목회학, 393.

34) 필자는 영국에서 유학 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후예배시간을 통해 catechism을 철저히 하고도 반복적으로 교육시킴으로서 성도들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교리에 근거한 삶의 정체성을 정답해 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보다 성숙된 신앙고백과 삶의 신앙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조를 통한 신앙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 모든 신자는 외적인 신학사상 및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습된 교리의 신앙고백문과 신조는 신학의 변증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증적 임무는 단순한 지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신앙적 삶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표준적 기능을 제시해 줄 신앙적 삶의 원리이자 지침서의 역할을 감당케 될 것이다.

현재까지 개 교회에서 실시해온 기존의 교리설교 방법은 6개 개혁주의 문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교기법의 하나의 체제로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본 교리교육 설교법은 종합적이며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독특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교리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을 중심으로 1년 또는 그 이상을 강해하든지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또는 소요리문답 하나만을 선정하여 강론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본 교리교육 설교법은 개혁주의 문서들을 그대로 설교 본문과 내용에 가져오기 보다는 6개의 문서들이 다루었던 핵심도서를 중심으로 교리 성경공부 형식이 아닌 설교형식을 갖추어서 주제중심으로 설교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설교법은 6개 개혁주의 문서들을 모두 낱알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에 따른 교리를 중심으로 6개 문서들을 활용하여 설교식으로 교리를 소개하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정통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설교방식이다. 따라서 이 교리교육 설교는 최대한 6개 개혁주의 문서들 가운데 소개되어진 교리의 핵심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작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리설교 방식은 한 문서만을 가지고 문답식 설교형태로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서는, 성도들이 너무 교리설교를 지루하게 여기게 될 소지가 많다는 점과, 거의 개혁주의 문서를 읽고 해석해주는 일종의 성경공부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성도

들이 목회자가 교리설교를 한다고 하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는 공부 설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법은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매우 역동적이고도 핵심적인 교리사상을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하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학과 신앙을 소유하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사실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는 교리교육의 대명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전부였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다 살펴봐도 성령의 본질과 사역과 역동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실상 매우 중요한 성령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방법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리교육 설교법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 등장했던 매우 소중한 개혁주의 6개 문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52주의 설교법을 통하여 보다 원숙하고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개혁주의 신앙고백 문서에 대한 역사적 이해

교리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우선 복음적인 개혁교회의 신조들과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6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벨직 신앙고백서(Confessio Belgica, 1561)

기독교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매우 오래된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벨직신앙고백서”는 오늘날 벨지움으로 알려진 당시 남부 화란지역

에서 작성되었다.³⁵⁾ 이 신앙고백의 작성자는 기 데 브레이(Guido De Bres, Guy de Bray)로서 그는 당대의 화란 개혁교회의 뛰어난 전도사이자 설교자였으며 1567년 장렬한 순교를 당한 위대한 위인이었다. 당시 이 지역의 교회들은 로만 카톨릭 정부로부터 잔악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는데, A.C. Cochrane에 의하면, 당시 화란의 개혁교회가 당한 핍박의 잔혹함은 16세기 당시 다른 어느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아마도 로마제국 하에 놓여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보다 더 잔악한 고문과 처형 및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³⁶⁾

이러한 정황 속에서 1548년 화란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브레스는 청교도운동이 시작되고 있던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드디어 1559년 37개조 구성된 신앙고백문을 작성하였다.³⁷⁾ 이 고백서의 작성목적은 “Psalter Hymnal”에 상세하게 묘사되어있다:

이러한 잔악한 핍박에 대항하며, 개혁교회 신앙을 옹호하는 우리는 결단코 그들이 고발하는 바처럼 반항자가 아님을 고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함과, 우리는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진정한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1561년에 이 고백서를 디 브레스가 준비하였다.³⁸⁾

35) 당시 저지대 지역(Low Countries)으로서 ‘Belgica’는 당시 남부와 북부 네덜란드 전체를 의미하며 오늘날의 네덜란드와 벨지움을 지칭한다.

36) Arthur C. Cochrane,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Century*, 185.

37) 벨직 신앙고백서는 1559년에 출판하게 된 “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559 과 그 내용과 순서절차가 매우 대동소이한데, 그 원인은 벨직 신앙고백서의 작성자는 칼빈을 직접 대면하며 그의 도움을 받았던 브레스를 통해 산출된 매우 개혁주의적이고도 칼빈주의적인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존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조국인 프랑스에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을 그의 제자인 De Chandieu가 개편하고, 1559년 파리 노회에서 인준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두 문서는 매우 형식과 내용이 개혁주의적이고도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이듬해 이 고백서는 당시 황제 필립 II세(Philip II)에게 보내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를 통해 필립왕이 관용책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진정한 순교자의 정신이 무엇임을 논증코자 함이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1566년 안트웬 총회(the Synod of Antwerp)와 1568년 베셀 총회(The Synod of Wesel)를 통해 공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후 엠덴(Emden, 1571), 도르트(Dort, 1574), 그리고 미드델부르크(Middelburg, 1581)에서 수용하였고, 최종적인 권위는 약간의 수정작업을 통해 1619년 돌트 총회(The Synod of Dort)에서 인준하게 되었다.³⁸⁾

벨직 신앙고백서는 모두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내용 순서는 갈리칸 신앙고백(Gallican Confession)과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1-2조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인식론을 다루고, 3-7조는 성경의 정경성과 권위성, 정경과 외경의 구분법, 성경의 완전성을 다룬다. 8-9조는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으며, 10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11조는 성령의 신성을, 12조는 창조와 천사를, 13조는 하나님의 섭리를, 14-17조는 인간론 및 인죄론을, 18-21조는 기독교론을, 22-23조는 이신칭의를, 24조는 성화를, 25조는 율법을, 26조는 그리스도 증보의 유일성을, 27-35조는 교회론을, 36조는 국가론을, 37조는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

38) Psalter Hymnal, *Doctrinal Standards and Liturg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entennial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Publication Committee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c., 1959), supplement, 2.

39) Erik Routley, *Creeeds and Confessions-From the Reformation to the Modern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88. 도르트 총회(The Great Synod of Dort)에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프랑스판, 라틴판, 그리고 화란판 문서들이 주의 깊게 개편되었으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정경(Cannons)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1619년 4월 29일을 기점으로 화란, 벨지움, 미국에 존재하는 화란개혁교단의 표준문서들로 공식적으로 인준되었다. Arthur C. Cochrane,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Century*, 187. Cf.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6th ed., (Michigan: Baker Books, 1983), V.I, 502-507.; Leonard Verduin, "Belgic Confession and Guido de Bres."

벨직 신앙고백서는 갈리칸 신앙고백서보다 덜 논쟁적이고도 특히 삼위일체, 성육신, 교회론, 성례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필립 샤프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외하고서 가장 칼빈주의적인 교리체계를 잘 진술해놓은 고백서라고 평가하였다.⁴⁰⁾

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Heidelberg Catechismus, 1563)

루터의 종교개혁의 여파는 중세 독일의 중요한 영지였던 라인강 상류에 위치한 팔라티네이트(Palatinate)에 침투하게 되었다. 이곳에 1556년 오토 헨리(Otto Henry)가 선제후가 되자 루터파가 흥왕하게 되었다가, 1559년 그의 사후, 프레데릭 3세(Elector Fredrick III)가 이곳 팔라티네이트의 선제후가 되었다. 이 도시에는 루터파, 칼빈파, 쾰빙글리파가 상호 공존하면서 다양한 신학 사상이 양산되었고, 급기야는 신학논쟁 특히 주의 성만찬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성에 대한 토론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프레데릭 3세는 사실 루터파의 신조가 상당히 스콜라신학(Scholasticism)적 성향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성찬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켈랑히톤파 존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조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562년 프레데릭 3세는 팔라티네이트를 위한 개혁주의적인 새로운 교리문답을 작성하기 위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⁴¹⁾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⁴²⁾를 시켜서 교리문답 초안을 작성토록 하였

40) Cf.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506.

41) 1534년 7월 18일 Breslau(지금의 Wroclaw, Poland) 태생인 우르시누스는 켈랑히톤 지도아래 7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스승 켈랑히톤을 모시고 1557년 뤼스 종교회의와 하이델베르크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는 훗날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학과장에 초청되어 1576년까지 개혁주의 신학을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프레데릭 3세가 서거 후 루터파 출신 루이 6세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의 주된 작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Corpus Doctrinae Orthodoxae)를 작성하였다.

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곳 팔라티네이트의 수도 지명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므로, 팔라티네이트 요리문답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 문답서는 우르시누스가 라틴어로 초안을 작성하고 올리비아누스가 독일어로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라틴어 초안은 매우 문장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원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독일어 초안은 감정적인 온순함과 유연함이 특징으로서, 이 두 문안은 상호적으로 매우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문답서는 칼빈과 라스키, 불링거의 요리문답서들을 참조하여 구성되었다.⁴³⁾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특징은 서문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교리적 가르침의 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신앙고백문이 가장 개혁주의적이자 성경주의적으로 단일 고백서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 문답서는 청소년들의 교회교육을 위함과 교회 성도들의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문답서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매우 훌륭한 성도들의 교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독일 개혁교회들은 오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만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비록 칼빈

42) 올리비아누스는 1536년 8월 10일 Treves 태생으로서, 제네바와 츠리히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개혁신학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프레데릭 3세의 고문으로서 개혁 활동을 하다가 1576년 그가 죽자 개혁신학 성향 때문에 추방당하여 158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록케이우스(Coccejus)와 람페(Lampe)와 함께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의 주창자가 되었다.

43) Cf.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 535. 1563년 1월 19일 1판 서문에 의하면, 선제후 프레데릭 3세는 자문과 협력에 조력한 여러 신학교 교수들과 교회 중직 목사들, 이에 직접 관여한 총감독관들, 목사들,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문답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낸 우리 기독교의 요약된 교훈서, 또는 요리문답서이므로 이후 교회와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고 기술하였다. 플레드 H. 클루스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 이승구역 (여수론, 1993), 184.

주의적 신학사상이 각 항목마다 철저하게 배여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노년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한 문장으로 이해하거나 암송하기에 너무 상황한 문장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리문답서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라는 대전제를 매우 치밀하게 설명해가고 있다. 1-2문은 서론으로서 위로의 본질을 설명하고, 3-11문은 제1부로서, 인간론 중 비참한 인간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12문부터는 12-85까지는 제2부로서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12-25문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26-28문에서는 성부론에 대하여, 29-32문에서는 성자론을, 53-64문까지는 성령론을, 65-68문은 성례전을, 69-74문까지는 세례론을, 75-85문까지는 예수의 성찬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86-마지막 129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생활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86-115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사역에 대한 성도의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십계명 강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16-129문까지는 성도의 기도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필립 샤프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성경과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번연의 ‘천로역정’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 작품보다 더 흔하게 번역되거나 널리 회자되어 사용되어진 책이 없을 정도이다. 수많은 해설서나 주석류 그리고 설교집,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위한 책들이 모두 이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대부분 개혁교회들 특히 화란과 미국의 개혁교회들은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 강단에서 이 교리문답을 해설하는 것이 관례이자 의무사항으로 여겨왔으며 현재도 실행하고 있다. 이 교리문답서는 칼빈의 교리문답에 설정된 예를 따라서 52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⁴⁴⁾

이 교리문답은 매우 성경적이며 개혁신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성경적인 증거로 인해 입증을 받고 있으며,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요리문답서(1536, 1541)⁴⁵⁾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647)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엇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가?”라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 연합의 개념을 강조함에 반하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보다 학문적이고도 지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려야 할 분이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3. 도르트 신조(The Canons of Dort, 1619)

라인강 하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알 5세(Karl V)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다. 카알은 통치권을 그의 아들 필립 2세(Philip II)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필립의 친스페인 정치성향과 이에 근거한 로마 카톨릭 중심의 종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네덜란드인들은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 1533-1584)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필립 2세 집권 하에서도 철저한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독립 시에 벨기에는 카톨릭

44)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536. 샤프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1566년 라틴어판에 처음으로 52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1573 또는 1575년판 독일어판으로 이해한 Van Alpen, Niemeyer의 실수를 지적하였다. 그의 책 537f. 또한 샤프는 이 요리문답서는 건전한 신학사상과 뛰어난 판단력에 기초를 둔 종교적 열심히 낳은 작품이며 이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오순절 불세례를 받았으며 이는 단순히 머리의 산물이 아니라 마음의 산물이며 믿음으로 가득차여 있으며 위로부터 감화를 받아 기록한 작품이라고 극찬하였다.

45) 존 칼빈은 제 1차 제네바에서 사역하던 당시(1536년)에 프랑스어로 된 요리문답서를 치리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네바 시에서 새로 조직된 개혁회의의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이는 그의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강요”를 발췌하여 작성한 작품으로서, 이는 총 58개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작성한 1541년판에서 칼빈은 보다 방대한 규모의 요리문답서를 작성하되, 총 주제를 55과로 나누어서 52주일과 3개의 절기로 나누어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로 남게 됨에 반하여 이들은 칼빈주의 개신교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다.⁴⁶⁾

그러나 5세기 초 어거스틴(Augustine)과 펠라기우스(Pelagius)로 시작된 하나님 주권사상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성에 대한 첨예한 논쟁은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⁴⁷⁾ 17세기 초기까지 네덜란드는 칼빈의 제자인 데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의 타락전예정론(Supralapsarianism)을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인정해왔으나 이러한 제네바 경향의 칼빈주의에 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름아닌 야콥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이다. 알미니우스는 베자의 제자이자 칼빈주의를 고백하던 자로서, 당시 칼빈주의를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던 디크 코른헤르트(Dirk Volkerts Coornhert)의 신학사상을 반박하도록 스승인 베자로부터 요청을 받고서 코른헤르트의 신학을 연구하다가 그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1603년 알미니우스가 라이덴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시작된 신학논쟁은 1619년 도르트 신조가 태동되기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라이덴 대학의 보수적인 칼빈주의 조직신학교수였던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와 알미니우스의 예정론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알미니우스 사후 고마루스의 제자였던 시몬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opius, 1583-1643)가 알미니우스 신학에 신봉자가 되어 1610년 46명의 알미니우스파 목사들과 함께 “대항의서”(The Remonstrance)라

46) 윌스던 위커, 기독교회사, 송인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578-9; 정성구, 칼빈주의 연구 (서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1992), 76 참조.

47)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발생한 논쟁에 불과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칼빈의 칼빈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주의 속에도 새로운 것이 없다. ...알미니우스의 교리들은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시대만큼이나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세속철학의 퇴폐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유포되었다.” 데이비드 스틸러 (D. 커티스 토마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서울: 엠마오출판사, 1986), 23-24. 헨리 미터, 칼빈주의와 근본원리 신복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을 참조할 것.

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자 1611년 보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반항론” 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자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르트 회의(The Synod of Dordt)가 소집되었다.

도르트 회의는 1618. 11. 13에 회집되어 1619. 5. 9 까지 154회에 거쳐 논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도르트 회의는 알미니안주의를 정죄하고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정통교리로 재선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위 칼빈주의 5대교리로 일컬어지는 “튠립”(TULIP)교리를 채택하게 되었다.

신조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교리는 신적 예정에 관한 교리로서, 철저한 인간의 타락과 무능력한 상태를 성경에 입각하여 어거스틴 사상체계로 묘사하였다. 특히 선택은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근거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둘째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교리로서, 이는 제한속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의 효력은 오직 택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확고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및 넷째 교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회심 및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죄 가운데 죽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과 화해의 사역을 실현하셨는데 이는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다섯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 주의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부르시고 성령에 의하여 중생시키신 사람들을 죄의 지배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택자들을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케 하신다.

도르트 신조는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보다 늦게 작성되었지만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체계화하여 칼빈주의 구원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 5개 조항의 특징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그 이유는 “이 모든 조항을 거부하지 않는한 단 한 개라고 거부할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⁴⁸⁾ 또한 이 신조는 당대 수많은 핍박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정립과정을 통해 전해진 소중한 유산이며⁴⁹⁾ 일미니안 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개혁주의적이며 성경주의에 입각한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훌륭한 시대적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4.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서(The Westminster Standards, 1643-7)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혁명의 절정에 작성된 청교도운동의 결정판이다. 헨리 8세(Henry VIII)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종교 개혁을 통해 시작된 청교도 운동은 에드워드 6세(Edwards VI)의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회 및 정치, 사회의 정화운동으로 진행되었으나, 카톨릭 추종자였던 피의 여왕 메리(The Bloody Mary)가 집권함으로써 수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숙청 및 화형을 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드 여왕(Elizabeth I)은 온건적 중도노선을 채택하여 카톨릭과 청교도 중용책을 유지하였다. 그 후 1603년 스코틀란드에서 제임스 6세로 통치하다가 잉글란드의 제임스 1세 왕으로 즉위하였다. 비록 그는 스코틀란드에 있는 동안 장로교제도를 신뢰하고 이를 신봉하였으나, 영국 왕이 된 이후로는 청교도들보다는 오히려 영국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 Anglican) 입장에서 서서 거의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영국국교회 형태의 교회 및 국가를 고수해 갔다. 이 당시 수많은 청교도들이 그로부터 추방되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뉴잉글랜드 향해 떠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을 건설한 순례자들(Pilgrim Fathers)이다.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Charles I)가 왕이 되자 철저한 앙글리칸 추종자인 윌리엄 라우드(William Laud)를 임용하여 청교도에 대한 강압책을 구사하였다.⁵⁰⁾ 찰스는 라

48) 데이비드 스틸러 & 커티스 토마스, 칼빈주의와 일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25.

49) 이호우, “도르트신조(the Canons of Dort)의 역사적, 신학적 이해”, 일립논총, 제 3집, 130.

우드 대주교와 Th. W. 스트래퍼드백(伯)을 두고 성실재판소(Court of Star Chamber, 星室裁判所)와 고등종무관(Court of High Commision, 高等宗務官) 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청교도를 탄압하고,⁵¹⁾ 의회 없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국왕의 대권을 남용하였다. 그런데 왕은 장로파가 우월한 스코틀랜드에 국교를 강요하려 함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자초하고, 전비를 얻기 위하여 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청교도들로 구성된 의회파와 왕당파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 둘 사이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1642년 4월 의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영국의 모든 주마다 2명의 신학자들을 지명하고, 모든 대학들에서 각 한명씩, 그리고 런던에서는 4명의 신학자들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명하였다. 1642년 9월에 국교회의 고위성직자 계급에 대한 철폐안이 상, 하의원을 통하여 과감히 통과되었고, 1643년 7월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총 15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21명의 신학자들과 30명의 평신도 입회인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모든 대다수 회원들은 장로교파로 구성되었다.⁵²⁾ 그 결과 1646년에 신앙고백서가 출간되었고, 1647년에는 대요리문답서와 소요리문답서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대중예배 요람과 교회행정 형태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교리, 예배, 권징에 대한 표준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에 걸쳐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50) William Laud는 철저한 알미니안주의파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주일날 게임과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주일행사를 진행하였고, 칼빈의 예정론을 절대 배격하였으며, 미신적인 사람으로서 수많은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형장으로 보내었으며 모든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51) 성실청에서 실시된 성실재판소는 국왕평의회(King's Council)의 재판관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배심은 없고 자백을 받기 위한 잔악한 고문이 행해졌으며 투옥, 발금,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의 형을 언도하였다. 고등종무관재판소는 에드워드 6세가 이단들을 심문하고 구금코자 제창하였으나 엘리자베스여왕시에는 카톨릭교도들을 감시하고 토마스카트라이터를 중심으로한 장로교파들을 제압하고 진압하는데 사용되었다.

52) 참석한 120명의 목사들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17명은 장로교 제도를 추구하는 목사들로 구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5장은 신론으로서, 성경과 삼위일체, 결정, 사역, 섭리를 다루고 있으며, 6-18장은 인간론과 구원론으로서, 인간의 타락과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부르심, 의인, 양자, 성화, 신앙, 회개, 선행, 견인, 은혜를 다루고 있다. 19-24장은 율법과 인간의 자유 및 의무사항을 다루고, 25-31장은 교회론으로서, 교회와 교제, 성례, 세례, 성찬 및 권징, 노회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32-33장은 종말론으로서, 사후 상태와 부활 및 최후심판을 다루고 있다.⁵³⁾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1647년 대소요리문답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대요리문답서는 대륙의 개혁교회에서 행해왔던 것처럼 설교 강단에서 기독교교리를 총 요약하여 공적으로 강해를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역사적인 다른 문답서보다 잘 짜여져 있으며 신학의 전체계를 매우 대중적인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석과 보충적인 설명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과 대요리문답서와 소요리문답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비교 대조하였다.

조직 신학	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
서론	1장	성경론(1-10문)	성경	1-6문	1-6문
신론	2장	삼위일체론(1-3문)	삼위일체	7-11문	4-6문
	3장	작정(예정)(1-8문)	작정	12-13문	7-8문
	4장	창조(1-2문)	창조	14-17문	8-10문
	5장	섭리(1-7문)	섭리	18-20문	11-12문
인간론	6장	타락, 죄와 형벌(1-6문)	타락, 죄	21-29문	13-19문
	7장	은혜언약(1-6문)	언약	30-35문	20문
기독교론	8장	중보 그리스도(1-8문)	그리스도	36-37문	21-28문

53) Sinclair B. Ferguson, "The Teaching of Confession", ed., Alasdair C. Her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the Church Today*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87), 28.

구원론	9장	자유의지(1-5문)	자유의지	149-152문	82-84문
	10장	소명(1-4문)	소명	58-61문, 67-68문	29-32문
	11장	칭의(1-6문)	칭의	70-73문	33문
	12장	양자(1문)	양자	74문	34문
	13장	성화(1-3문)	성화	75문, 77-78문	35-36문
	14장	신앙(1-3문)	신앙	153문, 72문	85-86문
	15장	회개(1-6문)	회개	76문	87문
	16장	선행(1-7문)	선행	78문	
	17장	견인(1-3문)	견인	79-81문	
	18장	구원의 확신(1-4문)	확신	80-81문	신자의 삶 39-107문
교회론	19장	율법(1-7문)	일반적 율법	91-98문	39-41문
	20장	자유(1-4문)			
	21장	예배와 안식일(1-8문)	구원의 유익	153-196문	86-107문
			서론	153-154문	86-88문
			말씀	155-160문	88-90문
			기도	178-186문	98-99문
			주기도문	187-196문	99-107문
	22장	맹세와 서원(1-7문)			
	23장	국가의 위정자(1-4문)			
	24장	결혼과 이혼(1-6문)			
	25장	교회(1-6문)	교회	61-66문, 69문	
	26장	성도의 교제(1-3문)	성도의 교제	65-66문, 69문, 82-83, 86-90문	36-38문
	27장	성례(1-5문)	성례	161-164문	91-93문
			말씀	153-160문	88-90문
	28장	세례(1-7문)	세례	165-167문	94-97문
29장	주의 만찬(1-8문)	성찬	168-177문	96-97문	
30장	교회의 권징(1-4문)				
31장	대회와 총회(1-4문)				
32장	죽음과 부활(1-3문)	영화	82-86문		
		부활	84-85문, 87-88문	37-38문	
33장	최후의 심판(1-3문)	심판	88-90문	38문	

소요리문답서는 대요리문답서를 더욱 명확하게 응축시켜 교회 어린이 교리교육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요리문답서는 교회정치와 권징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가장 성경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성경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제시해주고 있다. 소요리문답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전형적인 3개의 요리문답서 중 하나로 그 영향력은 루터의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아울러 매우 뛰어나고도 분명한 용어선택과 간결한 문장력과 철저한 교리요약을 형성하고 있다.⁵⁴⁾ 이 요리문답서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및 침례교회(Regular Baptists)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칼빈주의적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는 이르길, “내가 본 것들 중 최상의 요리문답 작품이며, 기독교신앙과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작품으로서 이는 교사들의 정통주의 사상을 시험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요리문답이다”라고 하였으며,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현대 유물주의 사상을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요리문답 제 1문이 내게 다시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이 1문의 의미가 더욱 깊숙이 그리고 심오하게 내 자신에게 되물어진다. ‘사람의 제 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⁵⁵⁾

V. 나오는 말

현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은—교회의 정체성(Identity)과 부흥의

54) Philip Schaff는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의 뛰어난과 특출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요리문답서의 온화함과 참신함과 단순함의 부족성을 지적하였다.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788.

55) Ibid., 787.

문화 및 침체, 이단들의 발흥 등-1세기동안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심혈을 기울임에 반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위상정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교회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 문화관, 역사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법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리교육 설교법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필수조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르치되, 역사 선상에 등장하였던 다양한 신조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가운데 가장 성경주의적이자 개혁주의적인 자료들을 엄선하여 성도들을 교육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리교육 설교법은 상기한 4개 개혁주의 문서들-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등을 공동 토대로 하여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자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설교의 형식을 통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교리교육 설교법은 기존의 교리강해와는 다른 구도의 방법론이다. 기존 교리문답식 강해는 하나의 요리문답서, 가령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서 또는 소요리문답서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공부시간이나 설교시간에 교리에 역매여 교리를 암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매우 지루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이후 등장하게 된 정통주의 신학(Orthodoxy Theology)이 중세 로마만 카톨릭 신학의 스콜라신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성경주의적이고도 복음중심의 신학을 체계화함으로 인해 신학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이후의 정통주의가 교조주의적 이자 사변적이고 드라이하인 신학으로 일관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 일의 만남의 신학과 체험의 신학 그리고 변화와 갱신의 신학을 추구한 결과 경건주의 신학(Pietism)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강단에서 실시된 교리강해

가 교조주의적이고 사변화 됨으로 인해 성도들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삶의 신앙,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의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소명과 중생, 칭의는 매우 강조되었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본질과 성화의 지상명령에 대한 사명의식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뜨거운 기도와 말씀은 존재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는 열정어린 신앙자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교리교육 설교를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칭의론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철저히 훈련시킴으로써 불신자들과 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참된 인격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함으로써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회복하여 개 교회가 다시금 내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역사적 문서들(Historical Documents), 교리문답(Catechism), 벨직 신앙고백(Confessio Belgica),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도르트 신조(Canons of Dordt),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Westminster Standards), 주일(Sunday), 설교(Predaching), 종교개혁(Reformation)

참 · 고 · 문 · 헌

- Cochrane, Arthur C.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Centu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6.
- Daniel, Eleanor. Wade, John W. and Gresham, Charles.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Cincinnati: Standard, 1980.
- Doberstein John W. "Sermon I", *Luther's Works*, v.51 edi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 Ferguson, Sinclair B. "The Teaching of Confession", ed., Alasdair C. Her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the Church Today*.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87.
- Gieseler, J. C. L. *Lehrbuch der Kirchengeschichte*. 3.ed., Bonn: Adolph Marcus, 1831, vol.2/1.
- Hedtke, R.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Heidelberg*, 1969, S. 82.
- Hymnal, Psalter. *Doctrinal Standards and Liturg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entennial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Publication Committee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c., 1959. supplement, 2.
- Jetter, W. "Katechismuspredigt", in *TRE* vol.17.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Creeds*. New York: Longman, 3rd ed. repr. 1983.
- Neuser, W. *John Calvin*. Neukirchen, 1870.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Routley, Erik. *Creeds and Confessions—From the Reformation to the Modern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Schaff, P.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6th ed., Michigan: Baker Books, 1983, V.I.
- Sherill, Lewis 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 Troelstra, A. *De toestand der catechese in Nederland gedurende de voor-reformatorische eeuw*. diss. Utrecht: Groningen: J. B. Wolters, 1901.
- Unger, M.F.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1955.
- 미터, 헨리. 칼빈주의와 근본원리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박기윤, *현대 한국교회 교리 설교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부제: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 요리문답서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3.
- 박현주,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설교에 관한 연구, 고려신학대학원, 1998년 석사 학위 논문,
- Gangel, Kenneth O. & Benson, Warren S. *Christ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 기독교 교육사, 유재덕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스틸리, 데이비드. & 토마스, 커티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서울: 엠마오출판사, 1986.
- 위커, 윌스턴.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이호우, “도르트신조(the Canons of Dort)의 역사적, 신학적 이해”, *달림논총*, 제 9집,
- 정성구, 칼빈주의 연구. 서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1992.
- 정일웅, 교육목회학.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루터, 칼빈,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서와 그 해설. 서울: 풍만출판사, 1987.
-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목회자와 설교,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2.

기독교대백과사전 증보 제 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빛과 소금, 1992년 4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Abstract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our Reformed Standard Documents A Proposal to Establish the Preaching of Catechism.

Jong Hun Yoon (Ch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e use of the reformed standard documents such as Confessio Belgica 1561, Heidelberg Catechism 1563, the Canons of Dordt 1619, the Westminster Standards, 1643-7, to be implemented practically in the pulpit.

Since the reformation movement, the reformed church has confessed and taught the reformed standard documents and such documents were very useful in making church members confess their faith according to scripture.

Now a days however the fact is that many churches fail to teach catechism and the confession documents because of incorrect and boring teaching methods.

Under these difficult conditions, this article will help to solve the problem: All preachers should teach catechism to church members as well as the standard confession documents with an expositive style by using the four reformed standard documents in their weekly Sunday afternoon sermon.

This catechism preaching is different from the style of catechism exegesis.

This new method assists to thoroughly analyze a basic and mandatory clause of Christianity and further assists church members to implement these results systematically.

Also this new method of catechism preaching will have a decisive role in establishing a resolute standard doctrine of Christianity.

This preaching method will give modern Christians, who are confused concerning a true biblical Christian identity because of theological diversities, a true understanding of faith and a systematic reformed theology. Accordingly, this method is necessary to constitute the reformed world view, the reformed outlook on life and faith which in turn will help to give all Christians the means to encounter the modern world.